

2016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 한국사

1.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 ②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③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센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여 사유 재산이 나타났다.
- ④ 농기구는 주로 석기로 만들어졌는데,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이 대표적이다.

1. 정답 : ②

- ② 신석기 시대는 실을 뽑는 기구인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의복을 만들어 입었고, 어로를 위한 그물을 만들었다.
- ①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을 하여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지었다.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지어 생활하였다.
- ③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시작으로 생산력이 증대하여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였고, 사유재산이 생기며 계급이 발생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 사회이다.
- ④ 청동기 시대에는 간석기가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종류도 보다 다양해지며 형태도 정형화한다. 돌도끼, 바퀴날도끼, 홈자귀, 자귀, 팽이, 반달 돌칼 등이 있다.

2.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이는 수렵 사회의 전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열렸다.
- ㉡ 고구려는 이미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였다.
- ㉢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고, 왕이 5부를 모두 통치해 왕권이 강했다.
- ㉣ 옥저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되었으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제의 풍속이 있었다.
- ㉤ 동예는 매년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으며, 각각의 부족이 영역을 엄격히 지켰다.
- ㉥ 삼한 사회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로, 특히 마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 삼한의 천군을 통해 제정의 일치를 엿볼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 정답 : ③

- ㉠ 부여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1세기 초 왕호를 사용하였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중국의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A.D. 8~23)를 세웠던 왕망은 주변 민족 국가의 칭호 등을 격하

시켰는데, 고구려에 대해서는 ‘하구려’라 표현하고 ‘왕’을 ‘후(侯)’로 격하시켰다. 이후 왕망의 신나라가 멸망한 뒤 고구려가 후한 광무제 때 조공하자 이에 다시 왕호(王號)를 부활(A.D. 32년)시켰다고 한다. (※ 이 문제는 출제자가 부여를 의도하고 출제한 듯 하지만, 고구려 역시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㉔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또한 결혼 풍습으로 민며느리제와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를 추려 가족공동묘에 안치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㉕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는 수렵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매년 12월(은력)에 열렸다

㉖ 부여는 5부족 연맹체로 왕 이외의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부여는 왕이 존재하였으나 왕권이 강하지 않았다.

㉗ 동예는 다른 부족의 경계를 넘으면 소와 말로 배상하는 책화가 있었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다. 동예는 고구려의 제천행사이다.

㉘ 삼한은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그 중 변한은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규슈(왜) 등에 철을 수출하였다.

㉙ 삼한은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 읍차 등이 있었고, 신성 지역인 소도를 관장하는 천군이 존재한 제정 분리 사회였다.

3. 백제의 여러 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② 근초고왕 때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이 시작되었다.

③ 고이왕 때 국가체제를 정비하며 6좌평 16관등제의 골격을 마련하였다.

④ 성왕 때 대외 진출이 쉬운 웅진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며 중흥을 꾀하였다.

3. 정답 : ④

④ 백제 성왕은 대외 진출을 위해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겼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며 백제 부흥을 도모하였다.

① 384년 백제 침류왕 대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고, 이듬해 한산(漢山)에 절을 창건하였다.

② 백제 근초고왕은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하여 고대국가를 완성하였다.

③ 백제 고이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백관의 공복제를 제정하여 6좌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

4. 신라장적(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서원경을 중심으로 하는 4개의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②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하였다.

③ 호(戶)는 9등급으로, 인구는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성별도 구별하였다.

④ 토지는 내시령답, 관모답, 촌주위답, 연수유전답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4. 정답 : ②

- ② 신라 민정문서는 촌락의 촌주가 변동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3년마다 작성하였다.
- ① 신라 민정문서는 서원경과 서원경에 근접한 어느 현 관할하의 사해점촌·살하지촌 등 4개 촌락에 대해 조사한 문서이다.
- ③ 신라 민정문서는 인정(人丁)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戶)를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남녀 각기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었다.
- ④ 민정(촌락)문서에 따르면 촌락의 농민들은 연수유전답, 관모전답, 내시령답, 촌주위답 등을 경작하였다.

5.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은 문장가로 유명하며 불교를 세외교(世外教)라고 비판하였다.
- ② 진골 출신의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한문 교육에 공헌하였고 신문왕에게 '화왕계'라는 글을 바쳤다.
- ③ 김대문은 신라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한산기', '계림잡전', '사륙집', '고승전' 등을 저술하였다.
- ④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뒤 귀국하여 성덕왕에게 개혁안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5. 정답 : ①

- ① 강수는 외교 문서를 잘 지어 문무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불교를 실제 세상과 동떨어져있는 세외교(世外教)라고 비판하였다.
- ② 설총은 6두품 출신으로 이두를 정리하였고, 신문왕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담은 '화왕계'를 지어 올렸다.
- ③ 김대문의 대표적 저서로는 『화랑세기』, 『한산기』, 『계림잡전』, 『고승전』 등이 있다. 『사륙집』은 최치원의 저서이다.
- ④ 신라 하대 대표적 6두품인 최치원은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에서 활동 한 뒤,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6. 고려의 대외 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담판으로 압록강 동쪽의 9성을 확보하였다.
- ② 고려는 국경 지대에 나성과 천리장성을 쌓아 거란과 여진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③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두 번째 침입을 하였다가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갔다.
- ④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끝까지 대몽 항쟁을 벌였다.

6. 정답 : ③

- ③ 거란의 2차 침입(현종 1, 1010)에 대한 내용이다. 거란이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40만의 대군으로 침입했지만, 양규의 선전과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물러났다.
- ①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는 거란의 소손녕과의 외교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동북 9성의 획득(1107)은 예종 대인 윤관이다.

②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성장한 여진을 경계하기 위해 개성에 나성을 쌓고, 국경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았다.

④ 삼별초는 강화도→진도→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항쟁하였고,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에서 대몽항쟁을 벌였다.

7.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인종 때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 충선왕 때에 일연이 쓴『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 ㉢ 『동명왕편』은 신라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신라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 ㉣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에서부터 서술하여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낸다.
- ㉤ 건국 초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7. 정답 : ①

㉠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1145, 인종 23)는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정사류(正史類)인 관찬 사서이며, 고려 초에 쓰여진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구삼국사』의 역사관을 전환하여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된 역사서이다.

㉡ 일연의 『삼국유사』는 원간섭기 초기, 충렬왕 때인 1281년에 편찬되었다.

㉢ 이의민 집권기인 1193년에 편찬된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정변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대두한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이규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자주적 민족 의식을 표방하며,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이승휴가 저술한 역사서로, 단군조선부터 서술하면서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는 자주성을 나타내었다.

㉤ 고려왕조는 조선왕조와 마찬가지로 건국초기부터 실록을 편찬하였다. 거란의 침입으로 초기 실록이 소실되기도 하였으나 현종~덕종 대에 7대 실록이 편찬되는 것을 시작으로 실록편찬은 지속되었다.

8.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망이·망소이의 난 ㉡ 김사미의 난 ㉢ 전주 관노의 난
㉣ 만적의 난 ㉤ 이연년 형제의 난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㉔ → ㉑ → ㉒ → ㉓ → ㉔

④ ㉔ → ㉑ → ㉒ → ㉓ → ㉔

8. 정답 : ①

㉑ 망이·망소이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인 1176년, ㉒ 김사미의 난은 이의민 집권기인 1193년, ㉓ 전주 관노의 난은 1182년, ㉔ 만적의 난은 1198년, ㉕ 이연년 형제의 난은 1237년의 사실이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하면, ㉑-㉔-㉒-㉓-㉕이 된다.

9. 다음 밑줄 친 왕의 재위 시절에 있었던 과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 전하가 근신(近臣)에게 …(중략)… 명령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중략)… 가만히 생각건대, 임금과 아버지와 부부의 인륜인 충·효·절의의 도는 하늘이 내려 준 천성으로서 사람마다 같은 것이니, 천지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났고 천지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삼강행실도」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리의 이름!

- ① 중국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인『칠정산』을 만들었다.
-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렸다.
- ③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하여『향약집성방』을 편찬하고,『의방유취』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간행하였다.
- ④ 화약 무기의 제작과 그 사용법을 정리한『총통등록』을 편찬하였다.

9.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출처가 『삼강행실도』인 점으로 보아 밑줄 친 ‘주상 전하’는 세종임을 알 수 있다.

②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한 것은 태종 대의 사실이다. 한편 세종 대에는 밀랍 대신 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하여 종전보다 두 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올릴 수 있었다.

① 세종 대에는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력을 참고로 하여 칠정산 내편을,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이해하기 위해 개정·증보하여 번역한 칠정산 외편을 간행하였다.

③ 세종 15년(1433)에는 중국의 당·송·명나라의 의서를 참고하고 우리의 자주적인 전통 의약법을 종합하여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한 『향약집성방』을 편찬하였다. 더불어 세종 27년(1445)에는 왕명으로 의관 전순의 등이 153종에 달하는 중국 의서와 국내 의서를 부문별로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④ 세종 대에는 화포의 제작법·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한글로 기록한 병서인 『총통등록』이 편찬되었다.

10.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문관은 학술 연구,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장(長)은 정2품의 대제학이었다.
- ② 조선의 사헌부는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③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교서관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10. 정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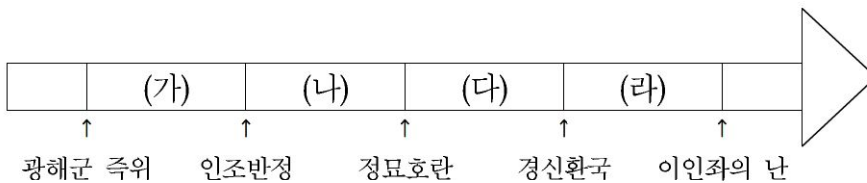
④ 교서관은 서적의 간행과 관리, 제사나 축하 전문을 보내는 것을 관장하던 기구로, 운각(芸閣)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던 기구는 예문관이다.

① 홍문관은 세조 때 문한(서적) 관리 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성종 대에 집현전을 대체하여 개편된 기구로, 정2품 대제학을 중심으로 주로 경연(經筵)과 서연(書筵)을 담당하였다. 또한 홍문관은 경적(經籍)과 문한(文翰) 관리 및 학술과 문필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옥당(玉堂)이라고 불렸다.

② 조선의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규찰 및 감찰하는 기관으로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③ 의금부는 왕의 특명에 의해 큰 죄인을 다스리는 특별 재판소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국가 기밀과 왕명 출납을 맡아보았다. 두 기관 모두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11. (가)~(라)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명나라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약 1만 3천 명의 원병을 파견하였다.
- ② (나) - 공로 평가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 ③ (다) - 청과 국경을 확정하고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다.
- ④ (라) -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11. 정답 : ③

광해군 즉위는 1608년, 인조반정은 1623년, 정묘호란은 1627년, 경신환국은 1680년, 이인좌의 난은 1728년의 사실이다.

③ 백두산 정계비의 설립은 숙종 대인 1712년의 사실로 (라)에 들어가야 한다.

① 후금의 급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명나라는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1616년). 명나라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를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

처하도록 명령하였다.

② 인조 반정 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1624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④ 조선 숙종 대 안용복은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1693).

12. 조선 시대 미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8세기에 들어 중국의 화풍을 배격하고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진경산수(眞景山水)의 화풍이 등장했으며, 정선은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을 그렸다.

② 김홍도는 섬세하고 정교한 필치로 정조의 화성 행차와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을 많이 남겼다.

③ 신윤복은 주로 도시인의 풍류생활과 부녀자의 풍속,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인 필치로 묘사하였다.

④ 김정희의 ‘묵란도’, ‘세한도’, 장승업의 ‘홍백매도’, ‘군마도’ 등은 19세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2. 정답 : ①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① 진경산수화는 중국 북종화법의 선묘(線描)와 남종화법의 묵법(墨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창안된 것이었는데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화가는 겸재 정선이었다. 정선은 18세기 중반 서울 근교와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의 명승지를 두루 답사하여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은 아니고, 자연에서 느끼는 인간의 주관적 흥취를 과장해서 그려냈다. 그의 대표작인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압구정도」에서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② 김홍도는 영조의 어진(御眞) 등을 그렸으며, 이어 정조 대에도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데 참여하였고, 찰방(察訪)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 공로로 연풍 헌감에 제수되었으며, 연풍 헌감을 그만 둔 뒤에는 정조의 화성 행차를 의궤로 제작한 『원행윤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의 제작을 주관하는 등 정조의 후원을 받으며 활발한 예술 활동을 하였다.

정조의 화성 원행과 관련된 병풍, 행렬도, 의궤 등 궁중 풍속(기록화)을 많이 그렸다.

③ 신윤복은 도시의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 도시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들의 풍속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대표작으로 「단오풍경」, 「월하정인」, 「주막」 등의 풍속화와 초상기법으로 그린 「미인도」가 있다.

④ 19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김정희는 「묵란도(墨蘭圖, 난초)」, 「세한도(歲寒圖, 소나무)」, 「묵죽도(墨竹圖, 대나무)」를 그렸고, 장승업(張承業)은 강렬한 필법과 채색법으로 「홍백매도」, 「군마도」 등을 그렸다.

13.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문과와 무과, 잡과 능이 있었고, 간단한 시험을 치러 하급관원을 선발하는 취제도 시행되었다.
- ㉡ 문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 외에도 증광시, 알성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있었다.
- ㉢ 생원과는 한문학에 뛰어난 인재를, 진사과는 유교 경전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였다.
- ㉣ 무과는 주로 서열과 중간계층이 응시하였고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었다.
- ㉤ 잡과는 해당 기술관청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정답 : ②

- ㉠ 과거에는 문과와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다. 한편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하급 관리를 채용하는 취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 ㉡ 조선시대 문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식년시가 있었고,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있었다.
- ㉢ 진사과는 고려 시대의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시(詩)·부(賦)·책(策) 등의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생원과는 고려 시대의 명경과와 마찬가지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 ㉣ 무과는 주로 서열과 중간계층이 응시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다.
- ㉤ 잡과는 사역원, 형조, 전의감, 관상감 등 해당 관청에서 기술관을 선발하였는데, 3년마다 치러졌으며, 분야별로 정원(총 46명)이 있었다.

14. 조선 시대 실학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형원은『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정약용은『경세유표』에서 형옥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 ③ 이익은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성리학, 게으름 등 여섯 가지를『나라의 좀』이라고 규정하여 그 시정을 주장하였다.
- ④ 허목은『기언』을 저술하였고, 봉당정치와 북벌정책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왕과 육조의 기능 약화, 호포제의 적극적인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14. 정답 : ①

- ① 유형원은『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정약용의 서적 중 형옥 및 법률에 대한 지침을 위하여 저술한 것은『흙흙신서』에 해당한다.『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은 중앙 행정 개혁의 필요성, 정전제의 실시, 이용감의 설치를 통한 과학기술의 수용 등을 언급하였다.
- ③ 성호 이익은『곽우록』에서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승려, 게으름 등 나라를 좀 먹는 6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

른바 '6좁'에 성리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허목은 자신의 문집으로 기언(미수기언)을 저술하였으며 남인의 영수로서 봉당정치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세제도의 완화 등의 시책에는 찬성했으나 서얼 허통, 호포제의 실시는 반대하였다.

15.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후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시형이 동학을 창시하였다.
- ② 정부의 적극적인 광산 개발 정책에 따라 18세기 중엽부터는 잠채 현상이 사라졌다.
- ③ 국제 무역에서 사적인 무역이 허용되면서 상인이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특히 의주의 만상은 대일본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④ 1678년 주조된 상평통보가 점차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으며, 환이나 어음 같은 신용 화폐도 사용되었다.

15. 정답 : ④

④ 17세기 말,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숙종 대에 이르러 상평통보가 법화로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환이나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 또한 사용되었다.

① 동학은 1860년 경주의 몰락양반인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종교에 해당한다. 최시형은 동학의 2대 교주로 1864년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된 후, 교단을 이어받아 포접제를 통한 동학의 교세 확산 등에 기여하였다.

②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이르러 설점수세제가 시행되면서 민영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허가 없이 몰래 채굴을 하는 잠채가 성행하였다.

③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대외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사상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의주의 만상은 대청무역에 종사하였으며 동래의 내상은 대일무역을 주도하였다. 또한 개성 상인인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 사이에서 중계무역을 전개하였다.

16. 다음 방침과 관련된 일제 강점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친일 분자를 귀족·양반·유생·부호·실업가·교육가·종교가 등에 침투시켜 그 계급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케 할 것.
- 종교적 사회 운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을 개정하여 불교 각 종파의 총 본산을 경성에 두고, 이를 관장하거나 원조하는 기관의 회장에 친일 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 친일적인 민간 유지자(有志者)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조선 청년을 친일 분자의 인재로 양성할 것.
- 조선인 부호·자본가에 대해 일·선(日·鮮) 자본가의 연계를 추진할 것.

- ① 조선 어업령을 공포하여 모든 어민의 기득권을 부인하고 새로이 면허·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하였다.
- ②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여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 ③ 치안유지법을 통해 언론·집회·결사를 탄압하였다.
- ④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16. 정답 : ③

제시된 내용은 문화통치(민족분열통치) 시기 당시, 일제의 친일파 양성과 관련한 내용이다.

③ 치안유지법은 문화통치 시기인 1925년 사회주의자 등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에 해당한다.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의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변경하여 우리 민족에 대해 유화책을 전개한다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상은 치안유지법과 고등경찰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언론, 집회, 결사 등을 탄압하였다.

① 조선 어업령은 무단통치 시기인 1911년에 일제가 공포한 법에 해당한다. 일제는 이를 통해 기존의 조선 어민들의 기득권을 모두 부인하고 새로이 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을 통제하려 하였다.

② 조선 광업령은 무단통치 시기인 1915년 제정한 법에 해당한다. 일제는 이를 통해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여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였다.

④ 회사령은 무단통치 시기인 1910년 일제가 제정한 것으로 허가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제는 회사 설립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민족 기업의 설립을 억제하였다.

17. 근대 교육기관 및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종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며 지·덕·체를 아우르는 교육을 내세웠고, 이에 따라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 ② 배재학당, 숭실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사립 학교이다.
- ③ 최초의 사립 학교인 육영공원은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어·자연 과학·국제법 등 근대학문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 ④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전서숙, 보성학교는 국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17. 정답 : ②

② 배재학당(1885), 경신학교(1886), 정신여학교(1887), 숭실학교(1897) 등은 근대시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① 고종의 교육입국조서는 광무개혁이 아닌 2차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에 반포되었다. 교육입국조서에서 고종은 지, 덕, 체에 입각한 근대 국민교육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이후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인학교, 기술학교 등 각종 학교가 설립되었다.

③ 육영공원은 1886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 공립 교육 기관에 해당한다. 최초의 사립 교육 기관은 1883년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설립한 원산학사에 해당한다.

④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성학교는 애국계몽운동 시기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국내에 위치한 것이 맞으나 서전서숙은 1906년 이상설이 북간도 지역에 설립한 학교에 해당한다.

18.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改良)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며, …(중략)…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개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帝王) 측에 존재하고, 인민사회(人民社會)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요,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주의(主義)를 바꾸려는 생각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 주의를 지킴이요,

셋째는, 우리의 대한(大韓) 유가에서 간이 직절(簡易直切)한 법문(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주자학)를 전적으로 숭상함이라.

- ①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연재하여 일본의 식민 사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② 동아일보에 연재한 ‘5천 년간 조선의 얼’등을 통하여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 ③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연구하면서 일제가 주장한 정체성론을 비판하였고 ‘조선사회경제사’를 편찬하였다.
- ④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박은식이 저술한 「유교구신론」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④ 박은식은 1915년에 『한국통사』를 저술하였고 1920년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사를 정리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① 신채호에 대한 내용이다.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연재하면서 역사 서술의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과거의 화이론(華夷論)적 사관이나 일본의 식민 사관을 비판함으로써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정인보에 대한 내용이다. 『5,000년간 조선의 얼』은 위당 정인보의 저서로서, 이 책에서 그는 조선 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 조 이래 5,000년간 면면히 흘러 온 얼’에서 찾고 조선 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하였다.

③ 백남운에 대한 내용이다. 백남운은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등을 저술하여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19.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초대 대통령으로 김구가 선출되었고,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된 근대적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일제에게 그 조직이 발각되어 와해되었다.
- ㉢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결성하고 대일 전선에 참가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진출하였다.
- ㉣ 임시정부가 충청으로 이동한 이후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정부 형태가 개편되었다.
-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국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 정답 : ①

-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의 형태로 삼권 분립과 대통령 지도 체제를 채택하였으며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국무총리에 이동휘가 임명되었다.
- ㉡ 임시정부는 충청으로 이동한 이후 김구를 중심으로 주석 중심제로 개헌하였다.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의 개헌은, 국민대표 회의가 결렬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2차 개헌을 단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비밀 행정 조직망으로서 연통제와 통신망으로서 교통국을 설치하였다. 연통제는 조선 총독부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는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임시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고 법령이나 공문 등을 국내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단속 하에 1921년경에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해체되었고, 이로 인해 임시 정부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 ㉣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을 얻어 중경(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
- ㉤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 다음에 주어진 사건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 ㉡ 조선어 연구회가 창립됨으로써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 ㉢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과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등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 ㉣ 국내 최대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해소되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㉔ → ㉑ → ㉒ → ㉓

④ ㉔ → ㉓ → ㉑ → ㉒

20. 정답 : ④

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의 사실이다. ㉓ 조선어 연구회의 창립은 1921년의 사실이다. ㉑ 국민대표 회의 개최는 1923년의 사실이며, ㉒ 신간회의 해소는 1931년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